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 4

I. 서론

본서의 앞부분(1-6장)은 이 세상 만물의 헛됨을 다각도로 증거하며 하나님을 ()하며 삶을 살도록 은연중에 암시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4장에서는 사회 정의의 불투명성, 5장에서는 인간 능력의 불투명성, 6장에서는 인간 본질의 불투명성을 이야기했고, 7장에서는 미래의 불투명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인간의 무력과 (), 부패와 ()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전도자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도덕적 부패도 결국 하나님의 책임인가? 이에 대해 전도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죄를 낸 것이니라”(28절)라는 결론을 맺고 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조리한 일들의 책임이 결국 인간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II. 본문

7장에서부터는 허무한 인생 속에서도 나름대로 보람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교훈적 형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젊은 시절에 인생의 허무함을 몸소 경험한 후에 신앙을 회복한 전도자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소유한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본장에 드러나 있는 사상적 특징은, ❶ 인간의 불행이나 재난이 반드시 악한 것은 아니다. 전도자는 현재의 슬픔과 고통이 환희와 기쁨보다 더 유익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불공평해 보이는 사건들에 대해 원망이나 불평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❷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인간적 평가는 ()일 수밖에 없다. 인간적 지혜로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❸ 외부적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가 존재한다.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모두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순된 세상 속에서 오직 배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과 규례를 따라야 할 뿐, 성급하고 부당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

1.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하는 생활 태도(7:1-29)

본장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장년 시기에 저술한 잠언의 내용을 인용하고 확대한다. 그러나 잠언과는 대조적으로 전도서에서는 어떤 행위에 대해 상대적인 관점에서 표현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1) 허무 극복을 위한 ()한 가치 추구의 삶(7:1-14)

전도자는 현재의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 면에 있어서 외형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사람의 환희와 기쁨보다 훨씬 유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부자의 즐거움보다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지속적 영향력이 더욱 중요하고, 인생의 어려운 ()들이 무익하고 공허한 웃음보다 더욱 큰 ()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1) 진정한 명성을 얻는 지혜로운 삶(1)

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1a)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 자체를 대변하므로 ‘좋은 이름’은 명성을 의미하며, ‘좋은 기름’은 고대에 부유함과 귀중한 것을 상징했던 품목 중에 하나이다. 사람의 ()은 그 사람의 죽음 뒤에도 계속될 수 있는 것이기에 부유함을 상징하며 좋은 향기를 내는 기름보다 더 낫다는 것이다.

②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옴(1b)

**이는 삶보다 죽음을 예찬하는 염세주의자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죽는 날’(좋은 명성을 쌓으며 살다가 죽는 것)이 ‘출생하는 날’(어리석고 우매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사는 시작의 날)보다 낫다는 것이다.

(2) 인생의 영원한 본질을 추구하는 진지함(2-4)

초상집에서는 고인에 대한 추모뿐만 아니라 자신의 ()을 깊이 숙고하게 만든다. 헛되고 허무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 죽음과 삶에 대해 진지하고 숙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성도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음(2a)
- ②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음,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뒤야함(2b)
- ③ 슬픔이 웃음보다 나움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임(3)
- ④ 지혜자의 마음은 ()집에 있으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집에 있음(4)

**사람이 죽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주시할 때, 숙연한 슬픔과 근심 가운데서 삶의 궁극적 의미를 상고하게 된다. 또한,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당연한 바람이며 본능이다. 문제는 어떤 낙을 추구하는가이다. 지혜자는 허망한 현실을 직시하여 ()와 목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반면, 우매자는 모든 생각과 관심을 순간의 육체적인 ()으로 기울인다.

(3) 우매자의 노래보다 나은 지혜자의 책망(5-7)

- 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움(5)

** ()은 들을 당시에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결국 잘못되

고 우매한 길을 벗어나 지혜로운 길로 접어들게 한다. 반면 우매자의 () 소리는 들을 때는 기쁜 것 같고 육감적으로 상쾌한 것 같으나 결국에는 일시적, 육체적 희락 속에서 헛되고 허무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②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숲 밑에서 가시가 타는 소리 같음, 이것도 헛됨(6)

**‘가시가 타는 소리’란 가시나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타지만 쉽게 사그라져 꺼지고 마는 것을 말한다.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겉으로만 요란할 뿐, 실속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

③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함(7)

**지혜도 돈에 연루되면 미련한 것을 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뇌물은 의인의 눈을 멀게 하며 명철을 흐리게 한다. 뇌물이 하나님의 ()을 훼손시키고 공정한 판단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4) 조급과 교만보다 나은 신중함과 인내(8-10)

①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움(8)

**어떤 일을 시작해서 ()하며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시작만 거창하게 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 낫다. 또한 ‘참는 마음’(에레크 루아흐)은 ‘긴 마음’이라는 뜻이다. 인내하는 마음을 말한다. ‘교만한 마음’(게바흐 루아흐)은

()을 말한다. 앞 구절과 연결하여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있더라도 교만하여 일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자와 힘들지만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끝까지 마치는 자를 비교하는 것이다.

②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9절)

③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10절)

***‘노를 발하는 것’은 ‘인내 결핍’과 ‘조급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우매한 자들의 모습이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에 집착하여 현실을 부인하는 자들, 즉

()들의 모습이다.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성숙한 삶의 태도가 아니다.

(5) 재물보다 나은 영원한 지혜(11-12)

본 단락은 지혜와 돈에 대한 연관성을 말하고 있다.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다’(11절)는 것은 지혜가 () (재물)과 함께 있을 때 더욱 귀하며,

‘햇빛을 보는 자에게’(살아있는 동안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혜와 돈은 둘 다 우리를 보호(방어)해주는 것인데,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는 것은 재물보다

()가 더 귀하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얻는 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파멸의 길로 향하는 것을 막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다.

- ①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됨(11)
- ②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음(12a)
- ③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임(12b)

(6) 인간적인 판단보다 앞세워야 할 하나님의 지혜(13-14)

본 단락은 1-12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왜곡되고 뒤틀린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처럼 왜곡되고 무의미한 세상에 사는 인생이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세가 최선이라는 것이 전도자의 결론이다.

- ①“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13)
- ②“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14a)
- ③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음(14b)

2) 중용의 미덕(7:15-18)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인간적 평가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적 지혜로는 절대적

인 의미에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불리 도덕적 선과 악의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절대화할 때는 완고한 흑백논리에 함몰될 우려가 있다. 전도자는 인간의 행동 속에 선과 악의 동기가 혼재되어 있고, 그 결과도 선악의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전적으로 순결하거나 혹은 전적으로 불결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와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 (1)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음(15a)
- (2)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15b)
- (3)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음(15c)
- (4)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16)
- (5)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17)

**전도자는 지나친 악행과 () (17절)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의와 지혜(16절)마저 경계한다. 이 조언은 지혜나 의의 한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나 목격한 바에 근거한 것으로, 지혜나 의가 형통함과 장수를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15절). 그러나 이 말은 적당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 인생의 ‘헛됨’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6)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음(18a)

(7)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18b)

**전도자가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유일한 길은 인생의 ()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3) 진정한 지혜에 대한 자각(7:19-29)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모두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의인의 멸망이나 악인의 형통과 같은 모순된 현실에 직면할 때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 오직 배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규례를 따라야 한다.

(1)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의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함(19)

***‘열 명의 권력자들’은 단순히 숫자상의 ‘열’을 뜻한다기보다는 완전수로서 많은 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을 ()함으로 얻는 힘이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20)

(3) 사람들이 서로 저주함(21, 22)

①“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21a)

②“그리하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21b)

③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음(22)

**세상에 완벽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음과 말로 드러나는 죄악된 인간 본성의

()과 심각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❶인간은 모두 부패한 존재이기에 상대방의 말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 ❷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클 것이다. ❸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 ❹나 자신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4) 스스로 지혜에 이르지 못함(23, 24)

전도자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를 추구했으나 자신의 지혜에 대한 () 또한 절감했음을 토로하고 있다. 본 단락은 ❶인간적인 지혜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음, ❷참다운 ()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 의해 주어짐을 암시하고 있다.

①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23a)

②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음(23b)

③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음, 통달할 자가 없음(24)

(5) 포승 같은 여인으로 은유된 이성의 ()(25, 26)

전도자는 앞 단락에서 지혜 앞에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시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지혜를 추구하려는 열심을 멈추지 않았다.

- ①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함(25a)
- ②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했음(25b)
- ③마음은 울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아냄(26a)
- ④“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26b)

**본 단락에서 ‘여인’은 잠언 1-9장에서 언급된 ‘음녀와 어리석은 여인’과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따르는 세상의 ()과 욕망에 대한 의인화된 표현이다.

(6) 진리에 대한 직관의 훼손(27-29)

- ①내가 날날이 살피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음(27)
- ②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임(28a)
- ③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음(28b)

**전도자(솔로몬)는 천명의 여자(왕상 11:3, 아내 칠백 명, 첩 삼백 명)를 경험했다. 그 안에서 선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의 주변에 있던 남자도 마찬가지로였다. 그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남자나 여자 가운데 완전히 () 사람을 찾을 수 없었

다는 것이다.

④“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29)

**전도자가 본장에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여러가지 측면으로 묘사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음 받은 존재라는 자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도자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의 인간이 참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참다운 인생을 영위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전도자(솔로몬)의 ()적 신앙을 배울 수 있다. 전도자는 세상 만물의 허무함을 자각한 후에 ()적 사상으로 경도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우리도 순간적인 쾌락과 ()적인 안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매일을 살아가야 한다.